어르신복지 전문 '문현노인복지관' 개관

2월 28일, 문현노인복지관 개관식
불교계 문수복지재단 수탁 책임운영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지상4층 규모 휴게공간 · 체력실 등
취미여가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어르신 전문 여가 시설로 자리매김
100세 시대 활기찬 노후 활동 지원



문수복지재단은 2월 28일 문현노인복지관에서 '문현노인복지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어르신들에게 전문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수복지재단(대표이사 지원)이 부산 남구 문현동에 신축 개관한 '문현노인복지관'을 운영한다.

문수복지재단은 2월 28일 문현노인복지관 일대에서 '문현노인복지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복지관 운영을 시작했다.

문현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 건강생활 프로그램, 취미여가지원 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활기찬 노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고 사랑방 역할을 대신한다.

개관식은 풍물패의 공연으로 시작해 △내빈소개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테이프커팅 △시설 라운딩 △복지관 영상 상영 △법인 대표이사 인사말 △제막식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문수복지재단 대표이사 지원 스님, 박재범 남구청장, 박수영 국회의원, 백석민 남구의회 의장, 조용광 대한노인회 부산남구지회장, 박시우 남구노인복지관장, 변정희 문현노인복지관장 등 대중 50명이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했으며 참석자를 50명 미만으로 제한해 행사를 진행했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기념사에서 "문현노인복지관이 완공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졌다. 함께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한다"며 "우리 어르신들은 국민의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한 대표 주역들이다. 그분들의 노력과 노고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복지는 이어져야 할 것이며 문현노인복지관은 이 정신을 대표하는 모델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수복지재단 대표이사 지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문수복지재단은 부산 남구에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행복한 복지세상을 꾸려나가고 있다. 부산 남구에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동반자로 노인복지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을 전했다.

변정희 문현노인복지관 초대관장은 "문현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 집처럼 편안하게 시설들을 누리며 여가생활을 활기차게 꾸려나가시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문수복지재단은 지난해 11월 문현노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할 기관으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개관을 준비해왔다. 문현노인복지관은 부산 남구청이 2016년 1월 남구노인복지관 분관 건립계획을 세웠고 부산시 특별교부금 및 자체재원 등을 확보해 신축했으며, 지난 1월 준공을 마쳤다. 총면적 939.43㎡의 시설은 지상 4층으로 1층은 식당 및 휴게 공간, 2층은 사무실과 회의실, 프로그램실, 3층은 소강당,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4층은 대강당 등이 위치한다.

문수복지재단은 국내외 구호활동을 원력으로 출범한 (사)위드아시아 대표이사 지원 스님이 대표이사이다. 문수복지재단은 전문복지기관으로 노인 및 지역민들을 위한 문수노인통합지원센터,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용호어린이집, 문현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며 불교계 대표 전문복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법정 스님 입적 12주기 추모법회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이 2월 26일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법당에서 '법정 스님 입적 12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봉행된 이날 법회에는 성주사 회주 흥교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범어사 금강암 주지 정만 스님을 비롯해 박수관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회장,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설동근 前 교육부 차관, 정종원 부산불교지도자 포럼 회장, 김선조 부산공무원불자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회는 예불과 삼귀의 및 반야심경으로 시작해 승 · 재가 내빈들의 헌화, 인사말씀, 등으로 이어졌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법정 스님은 맑고향기롭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스님이시다"며 "이 가르침을 이어받아 우리의 정신을 늘 맑게 하고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이타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보주당 혜해 스님 사리친견 법회

3월 19일~31일, 흥륜사 금당선방


흥륜사가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흥륜사 금당선방에서 故 보주당(普珠堂) 혜해 스님의 사리를 친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한불교조계종 흥륜사(주지 법진)가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흥륜사 금당선방에서 故 보주당(普珠堂) 혜해 스님의 사리를 친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혜해 스님은 한국불교 비구니 승단의 정신적 스승이자 후학들에게 수행정진과 검소한 삶으로 모범을 보인 생불(生佛)로 불렸다.

혜해 스님은 1921년 4월 27일 평안북도 정주군 안흥면에서 출생, 1944년 금강산 신계사 법기암에서 출가했으며 지난 2020년 5월 29일 세수 100세 법랍 77세를 일기로 열반에 들었다. 다비 후 사리 200여 과가 수습돼 화제가 된 바가 있으며 금강산에서 생을 마치고 싶다던 소망을 남기기도 했다.

혜해 스님은 금강산 유점사에서 참선 수행 중 해방을 맞았고, 1946년 10월 38선을 넘어 남으로 내려왔다. 스님은 참선 수행으로 대중을 가르치고 교화하며 이끌었다. 울산 석남사 등 여러 선원에서 수행하고 경주 흥륜사에 천경림선원을 개설해 납자들의 수행을 이끌었다.

흥륜사는 신라시대 최초의 사찰로 알려져 있다. 또, 경주의 상징인 신라인의 미소로 불리는 수막새가 출토된 곳이기도 하다.

혜해 스님은 당대 선사였던 향곡 스님, 성철 스님과 각별한 교유를 갖고 탁마를 이어갔으며 흥륜사를 수좌들을 위한 수행도량으로 발전시켰다. 북한 금강산 신계사 복원 당시에는 세납 90세의 고령에도 신계사를 찾아 부처님 전에 사시 마지를 올리고 통일과 평화를 위해 천일 정진 수행했다.

흥륜사는 "후학들이 스님의 생전 수행을 본받고자 사리함을 주조하여 사리를 모시기로 하였다"며 "흥륜사 대중 스님들은 스님의 사리를 사리함에 모시기 전 사부대중에게 사리를 마지막으로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흥륜사는 혜해 스님 사리함 봉안기념 혜국 스님 특별초청법회를 4월 24일 오전 10시 흥륜사 대웅전에서 봉행한다. (054)773-3387

범어사, 3 · 1운동 103주년 기념식

범어사 3·1운동 유공비 앞


범어사가 3월 1일 범어사 3 · 1운동 유공비 앞에서 '3 · 1운동 103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가 3월 1일 범어사 3 · 1운동 유공비 앞에서 '3 · 1운동 103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범어사는 매년 3 · 1절을 맞아 독립운동을 이끈 범어사 스님들과 명정학교(현 금정중) 학생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있다. 기념식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을 비롯해 총무국장 보운 스님과 대중 스님들이 동참했으며 서종현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장병주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사무총장 등 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헌다 △삼귀의 및 반야심경 △추모 입정 △헌향 △기념사 △헌화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됐다.

주지 경선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침략과 전쟁으로 목숨과 자주권을 잃었던 과거의 역사가 있다"며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독립을 꿈꾸었고 1919년 3월 1일 모든 민중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탑골공원에서 시작한 만세운동의 물결은 이곳 부산에서 독립운동가들과 범어사 스님, 명신학교 학생들의 주도로 큰 파도를 만들었다. 여러 스님들과 민중들은 일제의 탄압과 폭력에도 꿋꿋이 독립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 매해 3 · 1절을 맞아 기념행사를 마련해 호국영령들을 위로하는 법석을 갖는 것은 우리들의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서종현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은 "우리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독립된 국가에서 후손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범어사 스님을 중심으로 명정학교에서 불같이 일어난 부산 만세운동은 동래시장, 구포시장으로 번져 부산지역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폭제가 되었다. 오늘 3.1운동 103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나라의 소중함을 새기며 후손들에게도 호국의 정신을 물려주겠다는 원력을 되새긴다"고 다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